

“한반도 평화 정착은 세계 공통 과제”

■ 국제학술회의 주제발표 내용

‘2006 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정상회의’ 참가자들은 16~17일 이틀 동안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5·18 민주화운동과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갖는다. 이들은 5·18 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하고, 한반도 평화와 세계평화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국 및 주변국과 관련된 주제 발표만을 모아 정리한다.



도이 다카코 재니스 마살 엘런 맥니쉬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동아시아 비핵지대화 노력 서둘러야 美 한반도 정책 냉전시대 과오 반복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아시아의 노력(도이 다카코 일본 중의원 전 의장)=일본 정부는 현재 원폭 투하 이후 마련된 평화헌법 9조를 개헌, 군사력 증강을 피하고 있다. 이는 지역 안정과 평화에 큰 해를 가져올 것이다. 나는 ‘동아시아 종합 안전보장기구’에 대한 창설과 ‘북동아시아 비핵지대’에 대한 제안을 해왔다. 사실상 미국·중국·러시아 등 핵 대국이 서로 싸우고 있는 동아시아를 전쟁이 없는 지대로 실현해 나가는 데는 많은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 남미를 비롯, 많은 지역에서 비핵지대를 실현해가고 있다. 동아시아에서도 한반도·일본·대만이 비핵을 선언하고 점차로 비핵지대를 확대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는 민족주의를 넘어 대화와 이해를 통해 동아시아를 ‘평화의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분단 국가-세계 공통의 미래(셸 마그네 분데비 전 노르웨이 총리)=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지 60년이 흘

렀고 그에 따른 냉전시대 막을 내렸다. 그러나 한반도만은 여전히 예외로 남아 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큰 성과를 거뒀으나 한국은 아직 분단 상태이며 북한 국민의 인권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햇볕정책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왔다. 한반도 통일이라는 장기적 목표를 위한 평화와 화해는 정부의 노력으로만 이뤄질 수 없다. 국민의 노력이 필요하다. 평화와 화해를 위해서는 오랜 시간에 걸친 신뢰가 필요하다.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필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바로 전세계적인 노력이다.

◇한반도 평화를 향한 길(메리 엘런 맥니쉬 미국케이크봉사위원회(AFSC) 사무총장)=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6년간 양국은 평화를 위한 서로 간의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미국의 정책은 한국 상황을 더욱 불안하게 하

고 있다. 이는 1945년과 냉전시 미국이 행한 과오를 반복하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는 한국의 햇볕정책에 해를 입히는 한편 북한을 고립시키고 약으로 지목하고 있다. 무력을 과시하고 이념 공격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립정책을 쓰고 있으며 외교적인 압박과 군사시설을 증대해 왔다. 이로 인해 북한과 미국의 관계는 악화일로로 걷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기구들과 지도자들이 할 일은 바로 미국의 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동아시아 민주주의 및 인권 증진(제니스 마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UNHCR) 서울대표부 대표)=난민현장이 현재의 복잡한 이민 흐름이나 밀항, 인신매매 등에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은 여러 토론과 이벤트를 통해 이 같은 도전 과제에 대항하고 있다. 난민은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존중 및 보호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며 이는 난민현장에도 잘 나타나 있다. 아시아에서는 국제인권기구가 아시아에는 맞지 않는 서구적 개념이라고 비난하기도 하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한 아시아 지도자들은 이런 논리를 반박하고 있다. 우리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시상식에서 언급했듯이 결국 역사가 판단할 것이라는 신념 하에 민주주의와 인권, 인간의 보편적 가치, 인간의 위엄, 모든 소중함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국제기구의 역할과 과제(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단편적인 해결책보다 포괄적 형태의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피상적 현상뿐 아니라 본질적 원인을 찾아야 한다. 북한 핵문제 이전에 놓여있는 경제적 심각성과 북한 주민의 인도주의적 요구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6자회담을 통해 한편으로는 북한의 우려를 잠재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의 불안감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 해결방안이 성공적으로 모색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북한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대화인 6자회담의 진행과 동시에 남북한 시민사회간 대화와 주민간 상호교류도 적극적으로 진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남북대화를 위한 헌신적 노력에 대해 높은 경의를 표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반갑습니다” 노벨평화상 광주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5일 오후 광주공항에 도착한 미하일 고르바초프(가운데) 전 소련 대통령과 쉘 마그네 분데비 노르웨이 전 총리(오른쪽)가 박광대 광주시장의 안내를 받으며 공항 귀빈실을 나서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민주성지 광주 정상회의 이 땅의 모든 국민들 환영”

김대중 前대통령 환영사

광주는 민주성의 성지입니다. 1980년 5월17일 권력에 굶주린 군사독재자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자 시민들이 끝까지 평화적인 시위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평화시위에 대해 군사쿠데타 세력은 무자비하게 탄압을 행사해 200명 이상이 희생당하거나 행방불명이 되었고, 3천여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광주여거는 일시적으로 좌절되었지만 마침내 한국의 민주주의를 되찾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광주여거의 힘은 앞으로 이 나라 민주주의를 지켜가는 굳건한 원동력이 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유, 정의, 평화를 위한 광주여거는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여러분의 정신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때마침 광주에서는 남북한 대표들이 모여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을 경축하는 6·15민족통일대추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이지만 우리에게 가장 의미 깊은 행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광주에서 노벨평화상 수상자 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은 이 땅의 모든 국민들이 환영하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에 계시는 동안 건강하신 가운데 성공적인 회의를 진행시킬 것을 바라 마지 않습니다. 민주성지, 광주를 통해서 한국을 이해하는 기회를 갖기 바랍니다.

“한국과 광주의 환대 감사 한반도 평화 기여할 것”

고르바초프 前대통령 답사

존경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님, 영부인님, 노벨평화상 수상자와 단체 여러분, 김 전 대통령님의 초청을 받고 기쁘게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수장자 포럼은 회의를 계속하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로마 교황의 지지도 받았습니다. 또 김 전 대통령은 (이 포럼에 대해) 많은 제언을 했습니다. 이 전에는 김 전 대통령과 로마에서 만나, 많은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얘기를 나눴습니다. 다른 수상자들도 같은 생각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노벨평화상은 많은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노벨평화상 정상회의는 평화를 위해 격정하고,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반가운 것은 논의를 계속하면서 80~90년대의 많은 사건을 되새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한반도에 휴전선의 존재를 볼 때 통일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반도 문제는 복잡합니다. 우리가 기여할 것을 논의해야 합니다. 김 전 대통령은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김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전에 한국에 온 적이 있었으며 한국과는 관계가 깊은 편입니다. 저는 또 한국 유리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한국과 광주의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코피 아난 “동아시아 동시발전 가능성 모색” 지미 카터 “북핵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친서·영상메시지 정상회의 성공기원

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정상회의에 참석 의사를 표명했다가 개인 또는 국가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4명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이 친서 또는 영상메시지를 통해 광주정상회의의 성공을 기원했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친서를 통해 “광주는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에 있어 매우 의미있는 장소”라면서 “아시아에서 최초로 열리는 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 정상회의는 한반도 평화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의 폭 넓은 발전을 위한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매우 뜻 깊은 자리”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한반도의 평화 정착은 아직도 요원한 상태”라며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돌려 싸고 계속되고 있는 반북과 갈등은 한반도 분단이 동아시아와 세계에 제기하고 있는 위협의 정도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고 말했다.

오랜 감옥생활을 했던 넬슨 만델라 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현재 우리는 여정의 마지막 단계가 아닌 오히려 더 길고 어려운 길의 첫 단계를 맞이 했다”며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단지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존중과 신장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고 말했다. 만델라 전 대통령은 “은퇴 이후 외부 행사를 자제하고 있지만 메시지를 통해서라도 대화의 성공을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한반도 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장애요인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실정”이라면서 “북한 핵 문제는 결코 가볍게 다루어서 안되며, 무력적 방법이 아닌 오직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조정되고 해결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21세기에 접어들어 현재,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 정착을 방해하는 가장 심각한 장애물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한국 정부가 평화적인 대북 포용정책을 추진하고,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만큼 한국 정부의 ‘평화번영정책’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오른쪽의 노벨상 수상회의

시간	내용	장소
9:25~10:00	국립 5·18민주묘지 참배(한해, 봉환, 수상자 기념식(수인민주평화운동선))	국립 5·18민주묘지
10:36~10:45	평화행 사명 및 핸드프러닝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컨벤션홀)
11:00~11:50	개회식(700명) -개회식(700명)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과 한국의 민주화 -기조연설(고르바초프, 김대중, 지미 카터, 넬슨 만델라, 코피 아난)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컨벤션홀)
12:10~13:20	오찬(300명) -국립 5·18민주묘지 추모 추회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전시실)
13:30~15:00	국제학술회의 제1차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과 한국의 민주화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컨벤션홀)
15:20~16:50	제2차 -동아시아의 민주주의 확산과 인권신장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컨벤션홀)
17:10~18:40	제3차 -동아시아의 평화 확산을 위한 국제적 협력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컨벤션홀)
19:00~20:30	만찬(700명) -국립 5·18민주묘지 추회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전시실)

■광주 정상회의의 참석 노벨평화상 수상자·단체 및 공적

이름	수상년도	수상이유
오리버 코리엔(미)리영국	1976	북아일랜드 문제 비폭력 해결
고르바초프(소)소련(러)리영국	1990	소련군사당 및 냉전체제 종식
김대중 전 대통령(러)리영국	2000	한반도와 동아시아 민주주의 확산
쉬린 에버디(이)리영국	2003	여성과 아동의 권익신장
왕기리 디티이(케)리영국	2004	민중화랑운동과 여성 운동
국제평화사무국(스)리영국	1910	국제분쟁지역의 비폭력 해결
국제적십자위원회(스)리영국	1917-1944-1963	전쟁과 재해로부터 인명구조
미국케이크봉사위원회	1947	사회봉사와 평화의 실현
국제연합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스)리영국	1954-1981	난민들의 정치적 법적보호
국제사건위원회(영)국인연	1977	정치범 석방 및 인권운동
핵전쟁방지국제위원회(미국)리영국	1985	인핵의식 고조에 기여
피그워시회의(로)리영국	1995	핵무기 폐기 및 세계평화

의음영 여름방학 영어 캠프

의음영 여름방학 영어 캠프

2006년 7월 10일 ~ 7월 14일

1. 캠프 주제: 여름방학 영어 캠프

2. 캠프 대상: 초등학생

3. 캠프 장소: 의음영 영어 캠프

4. 캠프 비용: 1588-8010

5. 캠프 문의: 1588-8010

6. 캠프 홈페이지: www.wowtel.com

7. 캠프 후원: 한국교총과 함께 하는 의음영

8. 캠프 후원: 1588-8010

9. 캠프 후원: www.wowtel.com

10. 캠프 후원: 한국교총과 함께 하는 의음영